

好惡와 和親의 印象判斷次元에 따른 對人評價特性的 回想量의 差異*

趙 兢 鎬

筆者(趙兢鎬, 1982b)는 호오차원인상은 지적 특성을 중심으로, 그리고 화친차원 인상은 정적 특성을 중심으로 조직화될 것이라는 모형을 제시하고, 몇 가지 실험(1982a, b; 1983)을 통해 이를 검증하고 있다. 이 실험은 최근 대인기억 분야에서 밝혀진 도식적 정보처리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대인기억 장면에서 위의 사실을 밝혀 보려 한 것이다. 피험자들을 3집단으로 나누어 각각 호오차원인상과 화친차원인상, 그리고 아무런 차원을 명시하지 않고 전반적인 인상을 형성하라는 지시를 준 후, 20개의 특성(지적 특성 10개와 정적 특성 10개)으로 이루어진 대상인물을 제시하였다. 자극제시 후, 각각 지시받은 차원에 따라 인상판단을 하게 한 다음 5분간 주의분산과제를 풀게 하고, 곧 이어 제시받은 특성을 회상해 내도록 하였다. 그 결과 통제집단에서는 두 특성의 회상량에 아무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호오·화친의 두 집단에서는 각각 지적 특성과 정적 특성의 회상량이 그 반대의 것보다 더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지적 특성은 호오차원인상의, 그리고 정적 특성은 화친차원인상의 단서특성이 된다는 사실을 나타내 주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筆者(1982b)는 타인에 대해 이루어지는 인상판단의 과정과 내용은 각각자의 타인에 대한 의존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됨을 밝혀낸 바 있다. 즉, 타인이 情報源으로서의 가치를 갖는 정보의존의 상황에서는 대상인물의 정보제시능력과 성취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목표에서 인상판단이 이루어지게 되고, 타인이 效果源으로서의 가치를 갖는 호

* 이 실험은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박광수군의 도움으로 이루어졌다.

과의존의 상황에서는 대상인물의 효용제공의도 및 성향을 평가하는 목표에서 그에 대한 행동정향의 주관적인 인상판단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상인물에 대한 정보의존의 상황에서는 그가 얼마나 올바른 정보를 제시해 줄 수 있는가 하는 특성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지게 되고, 결국 이러한 지적 활동의 특성을 단서로 하여 인상판단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리고, 이 때 제시되는 정보가 얼마나 올바른 것이냐의 여부는 객관적인 공적 기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상대방에 대한 인상판단은 공적·사회적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며, 이러한 근거에서 그에 대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인상판단의 내용은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볼 때 情報源으로서 얼마나 좋은 사람이나 아니면 나쁜 사람이나 하는 好惡次元(good-bad dimension)에서 형성된다는 것이다. 반면에, 대상인물에의 효과의존의 상황에서는 그의 일반적인 효용제공의도나 성향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지게 되고, 결국 이러한 情的 특성을 단서로 하여 인상판단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리고, 이 때 대상인물의 효용제공의도나 성향의 판단은 지각자의 사적이고 개인적인 과거경험에 의존하게 될 것이므로 그에 대한 인상판단은 사적·개인적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며, 이러한 근거에서 그에 대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인상판단의 내용은 대상인물에 접근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주관적인 행동의도에 바탕을 둔 것이 된다. 즉, 그를 얼마나 좋아할 것이냐 아니면 싫어할 것이냐 하는 和親次元(like-dislike dimension)에서 인상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하여 검증되고 있다. 즉, 타인에 대한 의존상황에 따라 好惡와 和親의 서로 다른 인상판단이 이루어지게 되며, 이러한 두 차원의 인상내용은 각각 타인에 대한 객관적 및 주관적인 판단을 하여 얻어지는 것이라는 사실(趙, 1982b, 研究1과 研究2) 및 두 차원의 인상이 통합되는 양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趙, 1982b, 研究10) 호오판단의 인상내용이 화친판단의 그것보다 더 극단적인 것이 된다(趙, 1982b, 研究7, 8, 9)는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다. 그리고, 또한 호오차원의 인상판단이 이루어지는 정보의존의 상황에서는 공적·사회적 기준에서 인상판단이 이루어지고, 화친차원의 인상판단이 이루어지는 효과의존의 상황에서는 사적·개인적 기준에서 인상판단이 이루어진다(趙, 1982b, 研究3과 研究4)는 사실도 밝

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筆者의 이론적 모형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두 차원의 인상이 형성될 때 타인에 대해 탐색되는 정보내용이 상이하다는 점이다. 즉, 호오차원의 인상이 형성되는 정보의존의 상황에서는 타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 중에서 그가 얼마나 올바른 정보를 제시해 줄 수 있는가 하는 특성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지게 되고, 결국 이러한 지적 활동의 특성을 단서로 하여 인상판단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상인물에의 효과의존의 상황에서는 그의 일반적인 효용제시도나 성향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지게 되고, 결국 이러한 대인관계에서의 情的 특성을 단서로 하여 화친차원의 인상판단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筆者의 연구모형(趙, 1982b, pp. 23 ~ 33)에서 전제로 하고 있는 바는 대상인물에의 의존상황의 종류에 따라 타인에 대한 인상판단의 목표가 달라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러한 목표에 따라 서로 다른 心的 姿勢가 형성되기 때문에 타인에 대해 탐색하는 정보 내용과 판단기준이 달라지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의존상황에 따른 탐색 정보의 차이는 筆者의 이론적 모형에서 가장 핵심되는 내용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논점은 몇 가지 실험을 통하여 입증되고 있다. 筆者(趙, 1982b, 研究5)는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상황을 情報依存, 効果依存 및 復合依存(정보와 효과 두 가지에 모두 의존하는 상황)의 상황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각 의존상황에서 타인에 대한 인상을 형성할 때 타인이 가지고 있는 知的 特性과 情的 特性을 각각 얼마나 중요하게 고려하여 판단할 것인가를 평정토록 하였다. 그 결과, 정보의존의 상황에서는 지적 특성을 정적 특성보다 더 중요한 인상판단의 정보로 받아들이고 있는 반면, 효과의존의 상황에서는 정적 특성을 지적 특성보다 더 중요한 인상판단의 정보로 받아들이고 있음이 밝혀졌다. 그리고, 정보와 효과 두 가지에 모두 의존하는 복합의존의 상황에서는 이 두 특성의 중요도의 평정에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상인물에 대해 객관적인 호오차원의 인상이 형성되는 정보의존의 상황에서는 그의 지적 특성을 주요 단서로 하여 인상평가가 이루어지게 되고, 반면에 대상인물에 대해 주관적인 화친차원의

인상이 형성되는 효과의존의 상황에서는 그의 정적 특성을 주요 단서로 하여 인상평가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시사해주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실험의 결과는 각 의존상황에서 타인에 대해 인상판단을 할 때 어떤 특성을 얼마나 중요하게 고려하겠는지를 직접 설문방법으로 평정케 한 것으로서 몇 가지 제한점을 안고 있다. 우선 중요도의 평정 결과가 그대로 인상판단에 반영될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즉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얼마만큼 중요하게 고려할 것 같다'는 의견이 실제 인상판단의 장면에서 행동으로 그대로 옮겨지리라고 하는 보장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위의 실험은 대인관계의 의존상황(정보의존, 효과의존, 복합의존)들에서 인상판단을 할 때의 각 특성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평정케 한 것이다. 그러나, 각 의존상황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인상판단의 차원(호오차원과 화친차원)에서 실제로 각 특성들이 어떻게 통합되어 최종 인상내용으로 평정될 것인가 하는 점은 위의 결과만을 가지고는 알 수 없다.

이러한 문제들은 Hamilton과 Fallo(1974)의 연구를 참조하면 해소되어질 수 있다. 그들은 지적 특성만으로 대상인물을 기술하고 또 정적 특성만으로 대상인물을 기술하여 제시한 후, 이들 대상인물에 대해 객관적인 존경도와 개인적인 화친도의 두 가지 차원에서 인상판단을 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존경도의 경우에는 지적 특성의 인물이 정적 특성의 인물보다 더 높은 인상평가를 받았음에 비하여, 화친도의 경우에는 그 반대로 정적 특성의 인물이 지적 특성의 인물보다 더 높은 인상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결과는 지적 특성은 명백한 기준에 의한 객관적인 평가의 대상이 되고, 정적 특성은 사적인 기준에 의한 주관적인 평가의 대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각각 대상인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인 존경도와 주관적인 평가인 화친도의 평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지적 특성과 정적 특성은 각각 대상인물에 대한 객관적 평가인 호오차원 인상과 주관적 평가인 화친차원 인상을 판단하는 주요 단서로 사용될 것이라는 점은 또한 쉽게 추론될 수 있다.

筆者(趙, 1982a)는 이러한 가설을 직접 검증해 내었다. 그는 지적 특성과 정적 특성만으로 각각 대상인물을 구성하여 제시하고 이들 대

상인물에 대해 호오차원과 화친차원의 인상을 평정하게 하였다. 그 결과, 지적 특성으로 구성된 인물의 경우에는 호오인상이 화친인상보다 더 높거나(正的 單語로 대상인물이 구성된 경우) 낮았고(負的 單語로 대상인물이 구성된 경우), 情的 특성으로 구성된 인물의 경우에는 화친인상이 호오인상보다 더 높거나(正的 單語集團) 낮았다(負的 單語集團). 이러한 결과는 筆者의 후속되는 실험(趙, 1983)에서도 역시 대상인물을 구성하는 單語組合의 크기에 상관없이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실험결과들은 지적 특성은 호오차원 인상이, 그리고 정적 특성은 화친차원 인상이 형성되는 데에 더 큰 영향력을 가지며, 따라서 더욱 주요한 단서 특성으로 부각된다는 사실을 시사해주고 있다. 이렇게 지적 특성은 호오차원 인상에, 그리고 정적 특성은 화친차원의 인상에 단서특성으로 작용하게 된다면, 대상인물에 대한 호오차원 인상은 그의 지적 특성을 중심으로 조직화되고, 화친차원 인상은 그의 정적 특성을 중심으로 조직화될 것이라고 추리해 볼 수 있다.

최근에 對人記憶(person memory)의 분야에서 밝혀진 圖式的 情報處理(schematic processing)에 관한 연구결과들에 의하면, 지각자가 대상인물에 대해 가지고 있는 도식에 적절한 (또는 일치하는) 정보에는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게 되고, 따라서 도식에 일치하는 정보에 대한 기억이 촉진된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Ostrom, Lingle, Pryor & Geva, 1980). 여기에서 앞서 제시된 실험 결과들을 바탕으로 화친차원의 인상이라는 도식에는 정적 특성이 적절한 정보가 되고, 호오차원의 인상이라는 도식에는 지적 특성이 적절한 정보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보면, 동일한 대상인물에 대해 화친차원의 인상을 판단하는 장면에서는 대상인물의 지적 특성보다는 정적 특성이 더 잘 기억되고, 반대로 호오차원의 인상을 판단하는 장면에서는 그의 정적 특성보다는 지적 특성이 더 잘 기억될 것이라고 추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실험은 이러한 가설을 다음과 같은 예언으로 검증해 보려 하였다.

예언 1 : 지적 특성 기술어와 정적 특성 기술어로 하나의 대상인물을 구성하고 인상판단을 시킬 때, 和親判斷集團에서는 情的 特性의 기술어가 지적 특성의 기술어보다 더 많이 回想될 것이다.

예언 2 : 위의 조건에서 好惡判斷集團에서는 知的 特性的 기술어가 정적 특성의 기술어보다 더 많이 回想될 것이다.

예언 3 : 위의 조건에서 아무런 인상판단을 요구하지 않은 統制集團에서는 지적 특성 기술어와 정적 특성 기술어의 回想量에 아무런 차이가 없을 것이다.

方 法

被驗者 :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1·2학년 중에서 실험자의 요청에 자발적으로 응한 1학년 29명과 2학년 16명, 도합 45명이 본실험의 피험자였다. 이들은 실험자와의 사전 약속에 의하여 정한 편리한 시간에 전남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의 한 상담실에서 개별적으로 실험에 참가하였다.

實驗材料 : 張 聖洙(1978)의 자료에서 대체로 好惡度值와 和親度值가 같은 성격 특성 형용사 중에서 내용상으로 보아 지적 특성 기술어라고 판정되는 것과 정적 특성 기술어라고 판정되는 것을 각각 5개씩 선정하고(이는 張의 자료에서 필자와 2인의 심리학 전공교수가 각각 지적 또는 정적 특성이라고 판정한 후, 3인에게서 모두 합의된 판정을 받은 특성 중에서 안면 타당도가 높다고 생각되는 것을 지적 및 정적 특성 기술어로서 5개씩 선정한 것이다), 이에 덧붙여 好惡度值가 和親度值보다 높은 지적 특성 기술어 5개와 和親度值가 好惡度值보다 높은 정적 특성 기술어 5개를 선정하여 모두 20개의 성격 특성 형용사를 실험재료로 사용하였다. 각 집단별로 선정된 단어는 다음과 같으며, 단어집단별 호오도와 화친도의 척도치 平均과 그 分布範圍는 <表 1>에 제시되어 있다.

〈表 1〉 단어집단별 척도치 평균 및 그 분포범위

單語集團	尺度值 區分	好 惡 度		和 親 度	
		平 均	分 布 範 圍	平 均	分 布 範 圍
知的特性單語		1.83	1.27~2.43	1.65	.90~2.29
情的特性單語		1.84	1.48~2.31	1.94	1.63~2.34

* -3~3의 7점척도에서 얻은 尺度值임.

지적 특성¹⁾ 기술어 ; 근면하다*, 유능하다*, 훌륭하다*, 현명하다, 슬기롭다, 신중하다, 똑똑하다, 영리하다*, 아무지다*, 비범하다.

정적 특성 기술어 ; 착실하다*, 꾸밈없다*, 너그럽다, 상냥하다, 온화하다, 다정하다*, 병량하다, 호탕하다*, 재미있다*, 구수하다

이들 각 단어들을 29cm×30cm 크기의 두꺼운 백지 한 장에 한 단어씩 옆으로 벌려 적어 넣고, 이를 본 실험의 자극 재료로 사용하였다
節次: 실험은 총 5일 동안에 실시되었는데, 이 기간 동안에 실험실에 도착하는 순서대로 (1+3n)번째 피험자는 호오판단집단에, (2+3n)번째 피험자는 화친판단집단에, 그리고 (3+3n)번째 피험자는 통제집단에 배정하여 각 집단 모두 15명씩의 피험자에게 실험을 실시하였다. 피험자가 실험실에 입장하면 우선 배정받은 집단에 해당하는 인쇄된 지시문을 읽도록 하였다. 그러니까 지시문은 好惡判斷集團用과 和親判斷集團用 및 統制集團用의 세가지가 있었던 셈이다.

이 지시문들에는 어느 종류의 것이나 서두에는 인상형성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지시가 포함되어져 있었다. 즉, 다음에 제시될 형용사 각각이 서로 다른 인물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모두 한 사람에게 귀속되는 특성이므로 이들 형용사 모두로 묘사될 수 있는 어떤 한 사람을 상상하도록 하였다. 통제집단에는 단순히 이러한 지시문만을 제시하였으며, 好惡判斷集團과 和親判斷集團을 위해서는 각각 호오차원과 화친차원의 인상을 형성하게 하기 위한 지시문이 첨부되어 있었다. 호오판단집단을 위한 지시문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제3자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하는 얘기를 듣고, 그에 대한 인상을 형성할 때 우리는 종종 '그 사람이 객관적으로 볼 때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아니면 나쁜 사람인지'하는 점에는 주의를 별로 기울이지 않고, '내가 주관적으로 그 사람을 얼마나 좋아할는지 혹은 싫어할는지'하는 데 따라 인상을 형성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내가 주관적으로 그 사람을 얼마나 좋아할는지 혹은 싫어할는지'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이 객관적으로 볼 때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아니면 나쁜 사람인지'하는 판단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상대방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표시가 붙어 있는 것은 두 척도치에 차이가 있는 단어들이고, 표시가 없는 것은 아무런 차이가 없는 단어들이다.

이와 같은 요지 외에 객관적인 호오차원의 인상을 3번 강조하여 반복하였다.

화친판단의 경우에는 호오판단의 지시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아니면 나쁜 사람인지”하는 구절과 “내가 주관적으로 그 사람을 얼마나 좋아할는지 혹은 싫어할는지”하는 구절만을 바꾸어 넣고, 주관적인 화친차원의 인상을 평정할 것을 3번 반복하여 지시하였다.

이러한 지시를 주고 난 다음 자극재료를 제시하기 전에 피험자들에게 응답용 소책자를 배부하였다. 이 소책자는 모두 3장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 제일 첫 장은 각 집단별로 인상판단을 위한 척도가 제시되어 있었다. 즉, 호오판단집단에게는 대상인물이 객관적으로 볼 때 좋은 사람 아니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정도를 +20~-20의 41점 척도에서 평정토록 하는 평정척을 제시하였다. 이 때 평정척에는 +20에 “아주 좋은 사람”, 0에 “중간”, -20에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명명하였고, 나머지는 5점 간격으로 숫자만 기입하였다. 화친판단집단에게는 제시되는 인물에 대한 주관적인 좋아하고 싫어함의 정도를 +20~-20의 41점 척도에서 평정토록 하는 평정척을 제시하였다. 이 때 평정척에는 +20에 “아주 좋아한다”, 0에 “중간”, -20에 “아주 싫어한다”고만 명명하였고, 나머지는 5점 간격으로 숫자만 기입하였다. 그리고, 통제집단의 경우에는 응답용 소책자의 제일 첫장에 아무런 척도치가 적혀 있지 않은 백지를 넣어 주었다. 그 다음 장에는 주의분산과제(distracting task)를 제시하였다. 이 주의분산과제는 세 집단에 모두 동일하였는데, 응답지에는 (9576-7)이라고만 적어 넣고, 9576에서 계속해서 7을 빼도록 하였다. 그 다음으로 맨 마지막에 제시된 20개의 형용사를 회상하여 쓰게 하기 위한 응답지를 백지로서 제시하였다.

피험자에게 집단에 따라 이러한 응답용 소책자를 배부한 다음에 제일 첫 페이지의 평정척을 설명해 주고 자기가 판단할 인상판단의 차원을 확인토록 하였다. 이 때 통제집단의 경우에는 제시될 형용사로 묘사될 수 있는 인물을 머리 속에 상상해 보라는 지시를 다시 주었다. 그 다음 자극 단어를 한 장씩 제시하였다. 이 때 자극의 제시 시간은 스톱워치를 사용하여 한장당 2초씩으로 하였으며, 제시순서는 피험자

별로 완전히 서로 다르게 무선적으로 하였다. 그러니까 20 장을 모두 제시하는데 40 초가 걸린 셈이다.

자극의 제시가 끝난 직후, 제시된 인물의 인상을 해당되는 차원에서 41점 평정척에 평정토록 하였다. 이 때 통제집단은 응답 소책자 제일 첫장의 백지에 제시된 인물의 얼굴을 상상하여 그림으로 그려보도록 하였다. 이러한 인상판단을 위해서 20초의 시간이 주어졌다.

그 다음 피험자들에게 응답 소책자의 둘째 장을 펼치고, 9576에서 계속해서 7씩을 빼도록 하는 주의분산과제를 하도록 하였다. 이 과제는 뒤의 회상에 미칠 단기 기억의 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5분의 시간이 주어졌다.

주의분산과제가 끝난 후 응답소책자의 세째 장에 앞에 제시된 20개의 단어 중 기억에 남아 있는 것을 모두 회상하여 옮겨 적도록 하였다. 이러한 회상을 하는 데에는 3분의 시간을 주었다.

이렇게 하여 실험의 전과정이 끝나게 되는데, 피험자별로 대체로 15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實驗設計: 실험은 3 (印象判斷集團) × 2 (特性的 評價次元)에서 뒤의 요인이 반복된 요인설계로 진행되었다.

結 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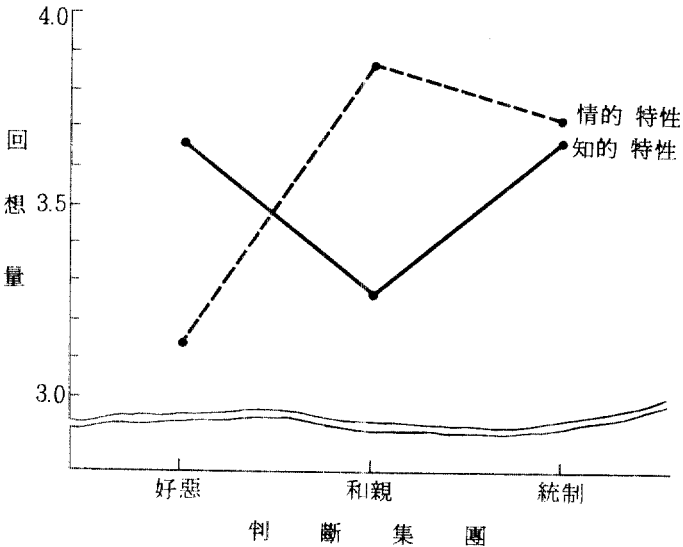
본 연구의 종속변인은 각 집단의 피험자가 올바르게 회상해 낸 지적 특성 형용사와 정적 특성 형용사의 수이었다. 이 분석에서는 誤回想된 단어는 제외하였다. 다음 <表 2>에 각 집단별 지적 특성 형용사와 정적 특성 형용사 및 전체적인 正回想量이 제시되어 있다.

판단차원 특성차원	好 惡	和 親	統 制
知的 特性	3.67(1.30)	3.27(.85)	3.67(1.66)
情的 特性	3.13(1.26)	3.87(.88)	3.73(1.06)
全 體	6.80(1.97)	7.14(1.20)	7.40(2.03)

<表 2>에서 보면, 지적 특성 형용사와 정적 특성 형용사의 회상량

에 호오판단집단과 화친판단집단 사이에는 상반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지만, 통제집단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즉, 화친판단집단에서는 정적 특성의 회상량이 지적 특성의 회상량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1.77, df=14, p<.05$). 이러한 결과는 화친판단차원에서는 정적 특성을 지적 특성보다 더 중요한 인상 평가의 단서로 삼게 되므로 더 많이 회상될 것이라는 본 실험의 예언 1을 지지해 주는 것이다. 또한 아무런 인상판단을 요구하지 않은 통제집단의 경우에는 정적 특성의 회상량과 지적 특성의 회상량에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써($t=.09, df=14, p>.05$) 본 실험의 예언 3을 지지해 주고 있다. 그러나, 호오판단집단의 경우에는 지적 특성의 회상량이 정적 특성의 그것보다 많기는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t=-1.23, df=14, p>.05$).

이러한 전체적인 경향을 알기 쉽게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 [그림 1]과 같다.



[그림 1] 각 집단 특성별 회상량 평균

위의 [그림 1]로부터 보면, 호오판단집단과 화친판단집단에서는 지적·정적 특성의 평가차원에 따라 회상량이 서로 교차하고 있다. 이는

본 실험의 기본 가설대로 이 두 요인의 상호작용이 의미있게 검출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통제집단을 포함하여 <표 2>의 결과를 전체적으로 변량분석하여 보면, 판단집단에서나($F=.40, df = 2/42, p>.05$), 특성의 평가차원에서나($F=.03, df = 1/42, p>.05$), 이들의 상호작용에서($F=1.72, df = 2/42, p>.05$) 모두 의미있는 차이를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 하지만, 통제집단의 결과는 본 실험에서 아무런 인상판단의 차원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성의 평가차원에 따른 회상량에 아무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예언 3을 위한 기준자료가 되는 것으로서, 인상판단차원에 따라 지적·정적 특성의 회상량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본 실험의 기본가설의 분석을 위해 일차적으로 중요한 자료는 아니다. 따라서, 이 통제집단의 결과를 제외하고, 호오판단집단과 화친판단집단의 자료만을 변량분석하여 얻어낸 결과는 <표 3>과 같다.

<表 3> 호오·화친 2집단 회상량 변량분석 결과

變 散 源	自 乘 和	自 由 度	平 均 自 乘	F
集 團 間	40.48	29		
判斷次元(A)	.41	1	.41	.29
誤 差a	40.07	28	1.43	
集 團 內	36.50	30		
特性評價次元(B)	.01	1	.01	-
A×B	4.83	1	4.83	4.27*
誤 差b	31.66	28	1.13	

* $p<.05$

<表 3>의 결과를 보면, 호오·화친의 판단차원과 지적·정적 특성 평가차원의 상호작용이 5%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검출되고 있다($F=4.27, df = 1/28, p<.05$). 이는 호오판단차원에서는 지적 특성이 정적 특성보다 더 잘 기억되고, 화친판단차원에서는 정적 특성이 지적 특성보다 더 잘 기억될 것이라는 본 실험의 기본가설을 지지해 주고 있는 결과라 볼 수 있을 것이다.

論 議

이러한 본 실험의 결과들은 지적 특성은 호오차원의 인상이 형성되는 단서로 작용하기 때문에 호오차원의 인상은 이러한 지적 특성을 중심으로 해서 조직화되고 따라서 호오차원의 인상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적 특성의 기억이 촉진되며, 반대로 정적 특성은 화친차원의 인상이 형성되는 단서로 작용하기 때문에 화친차원의 인상은 이러한 정적 특성을 중심으로 해서 조직화되어 화친차원의 인상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정적 특성의 기억이 촉진될 것이라는 본 실험의 기본가설을 지지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본 실험의 결과는 對人記憶의 분야에서 밝혀진 도식적 정보 처리에 관한 연구결과들(Dooling & Lachman, 1971; Sulin & Dooling, 1974; Loftus, 1975; Higgins & Rholes, 1978; Rothbart, Evans, & Fulero, 1979; Lingle, Geva, Ostrom, Leippe, & Baumgardner, 1979; Srull & Wyer, 1979; Hamilton, 1980; 등)과 일치되는 것이다. Ostrom, Lingle, Pryor와 Geva(1980)는 이러한 결과들은 모두 주제 또는 도식에 적절한 정보(theme-relevant information)는 그렇지 않은 것보다 더 잘 기억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라고 논의하고, 이러한 결과들은 정보의 入力過程(encoding process)에서의 차이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주제에 적절한 정보가 그렇지 않은 정보보다 선택적으로 더 잘 入力되어지기 때문에 기억에서도 촉진효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Bransford(1979)의 주장대로 기존의 범주에 속하는 항목들은 더 활성화되고 더 잘 조직화되기 때문에 후속의 정보처리 과정이 더욱 촉진되므로써 기억이 잘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들의 관점에서 보면, 본 실험의 결과는 호오판단차원은 지적 특성을 단서로 하여 인상이 형성되고, 화친판단차원은 정적 특성을 단서로 하여 인상이 형성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왜냐하면, 호오판단차원에서는 지적 특성이, 그리고 화친판단차원에서는 정적 특성이 더 많이 기억되었다는 것은 지적 특성은 호오판단의 도식에, 그리고 정적 특성은 화친판단의 도식에 적절한 정보이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表 3>에서 호오·화친판단차원과 지적·정적특성차원 사이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한 것으로 검출되고 있을지라도($F = 4.27$, $df = 1/28$, $p < .05$), 지적 특성이 호오차원 인상의 단서특성으로 작용하는 정도보다는 정적 특성이 화친차원 인상의 단서특성으로 작용하는 정도가 훨씬 심하다. 이는 호오판단집단에서는 지적 특성의 회상량(3.67)이 정적 특성의 그것(3.13)보다 많기는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는 아님에 비하여($t = 1.23$, $df = 14$, $p > .05$), 화친판단집단에서는 지적 특성의 회상량(3.27)보다 정적 특성의 그것(3.87)이 유의미하게 높다($t = 1.77$, $df = 14$, $p < .05$)는 사실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정적 특성의 인상판단차원에 따른 단서특성으로서의 情報優越性이 지적 특성의 그것보다 큼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호오·화친판단차원에 따른 정적 특성의 회상량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t = -1.90$, $df = 28$, $p < .05$), 지적 특성의 회상량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t = 1.30$, $df = 28$, $p > .05$)는 결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화친차원의 인상이 형성되는 효과의존의 상황에서는 정적 특성만을 중요한 단서로 인지할 뿐 지적 특성은 인상판단에 중요하지 않은 특성으로 보는 반면, 호오차원의 인상이 형성되는 정보의존의 상황에서는 지적 특성을 더 중요한 단서로 보고 있을 뿐 정적 특성도 어느 정도는 중요하게 받아들인다”는 筆者의 선행연구 결과(趙, 1982b, 研究 5, p.80)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실험의 결과에서 또 한가지 지적할 점은 아무런 인상판단의 차원을 명시하지 않은 통제집단과 인상판단의 차원을 명시해 준 호오 및 화친판단집단 사이의 회상량의 차이이다. Hamilton(1980)은 피험자들에게 자극인물에 대한 인상판단을 하라는 지시를 준 인상자세조건에서가 제시된 인물의 특성을 될 수 있는대로 많이 기억하라는 기억자세조건에서보다 제시된 자극 특성에 대한 회상량이 많았다는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그는 이러한 결과를 인상자세조건의 피험자들은 인물관련도식을 사용하여 자극재료를 더 잘 조직화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본 실험에서 분명한 인상판단의 차원을 명시한 호오·화친판단의 회상량이 차원을 명시하지 않은 통제집단의 그것보다 많으리라고 추리해 볼 수 있다. 그러나 <表 2>

에서 보면, 통제집단의 지적 특성 회상량(3.67)은 지적 특성이 주요 단서 특성이 되는 호오판단집단의 그것(3.67)과 같고, 정적 특성 회상량(3.73)은 정적 특성이 주요 단서특성이되는 화친판단집단의 그것(3.87)과 비슷하여, 통제집단의 전체적인 회상량(7.40)은 호오판단집단이나(6.80), 화친판단집단의 그것(7.14)보다 오히려 많다. 하지만 통계적으로는 지적 특성의 경우, 통제집단과 호오판단집단의 회상량 사이에서나($t = .00, df = 28, p > .05$) 통제집단과 화친판단집단 회상량(3.27) 사이에서($t = .81, df = 28, p > .05$) 아무런 차이가 없었으며, 정적 특성의 경우에도 통제집단과 호오판단집단의 회상량(3.13) 사이에서나($t = 1.33, df = 28, p > .05$) 통제집단과 화친판단집단의 회상량 사이에서($t = -.33, df = 28, p > .05$) 아무런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전체적인 회상량의 경우에도 통제집단과 호오판단집단 사이에서나($t = -1.26, df = 28, p > .05$), 통제집단과 화친판단집단의 사이에서($t = .54, df = 28, p > .05$)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본 실험의 통제집단이 Hamilton(1980)의 기억자세조건과는 다른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본 실험에서는 통제집단에게 비록 제시될 인물의 인상을 판단할 차원을 명시해주지 않았지만, ‘제시되는 특성으로 기술될 수 있는 인물을 머리속에 그려보라’는 지시를 주므로써 전반적인 인상을 형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통제집단의 피험자들은 어느 한 쪽의 특성만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두 가지 특성에 모두 주의를 기울였으므로, 이 두 가지 특성 모두에 대한 전반적인 인물관련 도식을 사용하여 제시된 특성을 조직하였을 것이라는 추측을 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도 적절한 관련도식에 따른 특성정보의 선택과 인상정보통합이라는 본 실험의 기본가설을 대체로 지지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언급해야 할 점은 본 실험에서 사용된 자극재료의 선정 과정이 타당한 것이었느냐 하는 문제이다. 이는 앞에서 논의된 내용들의 적합성에 관련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본 실험의 자극재료로는 호오도치와 화친도치에 차이가 있는 특성(호오도치가 화친도치보다 높은 특성은 지적 특성, 화친도치가 호오도치보다 높은 특성은 정적 특성)과 두 척도치에 차이는 없지만 내용상으로 보아 분명히 지적 또는 정적 특성이라고 판정되는 특성을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여기서

두 척도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특성은 각각 지적 특성과 정적 특성이라고 보아 이의가 없겠지만, 두 척도치에 차이가 없는 특성을 과연 내용상으로 보아 지적 및 정적 특성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점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은 각 판단집단과 특성차원별로 두 척도치에 차이가 있는 단어와 차이가 없는 단어의 회상량을 제시한 것이다.

〈表 4〉 판단집단·특성차원별 척도치 差有·無 단어의 회상량 평균 (괄호안은 SD)

特性次元 / 判斷	好 惡		和 親		統 制	
差有·無	知的	情的	知的	情的	知的	情的
差有(A)	1.67(.79)	.93(.80)	1.93(1.00)	2.00(.89)	2.00(.97)	1.47(.88)
差無(B)	2.00(.89)	2.20(.75)	1.33(.79)	1.87(.81)	1.67(1.01)	2.27(1.24)
t _{A-B} (df = 14)	-1.15	-5.57**	1.64	.31	1.15	-1.60

** p < .01

〈表 4〉에서 보면, 호오판단집단의 정적 특성의 경우만을 ($t = -5.57$, $df = 14$, $p < .01$) 제외하고는 모두 두 척도치에 차이가 있는 단어와 차이가 없는 단어의 회상량에 아무런 유의미한 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호오판단집단의 정적 특성의 경우에도 차이가 있는 단어의 회상량이 많은 것이 아니라 차이가 없는 단어의 그것이 훨씬 많다. 이 실험에서 만일 두 척도치에 차이가 없는 데도 내용상으로 보아 지적 또는 정적 특성으로 판정하여 선정된 단어들이 각각 실제로 지적 또는 정적 특성의 기술어로서 부적절한 것이었다면, 호오판단과 화친판단집단에서는 차이가 있는 단어들의 회상량이 더 많았을 것이다. 특히 호오판단집단의 지적 특성에서와 화친판단집단의 정적 특성의 경우에 이러한 경향은 두드러지게 나타났을 것이다. 그러나, 실험 결과는 특히 이 두 경우에 두 척도치에 차이가 있는 단어와 차이가 없는 단어의 회상량에 아무런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은 두 척도치에 차이가 없는 단어를 안면타당도로 판정하여 지적 및 정적 특성으로 선정한 본 실험의 실험재료 선정의 절차가 아무런 무리가 없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參 考 文 獻

- 張聖洙. 印象形成에서의 情報統合에 관한 一考察. 서울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 請求論文, 1978.
- 趙兢鎬. 知的 評價情報와 情的 評價情報가 好惡次元印象과 和親次元 印象에 미치는 影響의 差異. *社會心理學研究*, 1982(a), 1-1, 78~100.
- 趙兢鎬. 對人評價次元의 二元性에 관한 研究-好惡性과 和親性-. 서울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 請求論文, 1982(b).
- 趙兢鎬. 情報의 評價特性 및 組合의 크기에 따른 好惡와 和親次元 印象反應의 差異. *社會心理學研究*, 1983, 1-2, 279~296.
- Bransford, J. D. *Human cognition: Learning, understanding and remembering*. California: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1979, Chap. 6.
- Dooling, D. J., & Lachman, R. Effects of comprehension on retention of prose.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1971, 88, 216-222.
- Hamilton, D. L. Cognitive representations of persons. In Higgins, E. T., Herman, C. P., & M. P. Zanna (Eds.), *Social cognition: The Ontario symposium 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New Jersey: Lawrence Erlbaum, 1980.
- Hamilton, D. L., & Fallot, R. D. Information salience as a weighting factor in impression form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74, 29, 649-654.
- Higgins, E. T., & Rholes, W. S. "Saying is believing": Effects of message modification on memory and liking for the person described.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978, 14, 363-378.
- Lingle, J. H., Geva, H., Ostrom, T. M., Leippe, M. R., & Baumgardner, M. H. Thematic effects of person judgments of impression organiz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79, 37, 674-687.
- Loftus, E. F. Leading questions and eyewitness report. *Cognitive Psychology*, 1975, 7, 560-572.
- Ostrom, T. M., Lingle, J. H., Pryor, J. B., & Geva, N. Cognitive organization of person impressions. In Hastie, R., Ostrom, T. M., Ebbesen, E. B., Wyer,

R. S., Jr., Hamilton, D. L., & D. E. Carlston (Eds.), *Person memory: The cognitive basis of social perception*. New Jersey: Lawrence Erlbaum, 1980, 55-88.

Rothbart, M., Evans, M., & Fulero, S. Recall for confirming events: Memory processes and the maintenance of social stereotype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979, **15**, 343-355.

Srull, T. K., & Wyer, R. S., Jr. The role of category accessibility in the interpretation of information about persons: Some determinants and implic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79, **37**, 1660-1672.

Sulin, R. A., & Dooling, D. J. Intrusion of thematic ideas in retention of prose.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1974, **103**, 255-262.

ABSTRACTS

The Difference of Recall for Intellectual and Social Traits as a Function of the Impression-Dimension

Cho, Geung-Ho

The author (Cho, 1982b) formulated the differential model of impression formation as a function of the impression-dimension. In this model, it was presumed that intellectual traits may be more salient information for judgment of the favorableness (good-bad) impression-dimension, on the other hand, affective traits may be more salient information for judgment of the likableness (like-dislike) impression-dimension.

Recently, researchers of the area of person memory found that recall for confirming events were more superior to that for non-confirming events. They concluded from these results that impression of the other person may be organized according to the schema of the perceiver at that situation (schematic impression formation). Viewing from this point, it can be easily expected that in case of the favorableness impression judgment, recall for intellectual traits will be more superior to that for affective traits, on the other hand, in the likableness impression judgment, recall for affective traits will be more superior to that for intellectual traits.

This study was designed to test this hypothesis. Twenty traits (10 intellectual traits and 10 affective traits) were selected to construct one stimulus person. These traits were presented to subjects one by one per 2 seconds for each trait. Prior to presentation of the traits, the subjects were given one of 3 types of the written instruction, which directed to form the good-bad impression (favorableness-dimension group), or the like-dislike impression (likableness-dimension group), or to think of a person entered his (or her) mind (control group). Each group consisted of 15 college students. After being presented with 20 traits, subjects judged the impression of that stimulus

person according to their instructed dimension, and then worked the distracting tasks for 5 minutes. Next to this procedure, they instructed to recall as many as possible the traits they had see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consistent with the above hypothesis. From this results, it was concluded that intellectual traits are cue information for the favorableness impression, on the other hand, affective traits are cue information for the likableness impression.